

PEOPLE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국토부 경영·서비스평가 광주교통공사 '종합 1위' 쾌거

광주교통공사(사장 조익문·사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전국 철도·도시철도 기관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전국 16개 철도·도시철도 기관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동종 기관들의 평균 점수인 87.43점을 크게 웃도는 92.78점을 획득했다.

공사는 그간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서 전 역사 내 종합안내도에 QR코드를 통한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객 편의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역사 내 시설물 유도 안내선을 설치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펼쳤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전 역사 출입구 폴사인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교체해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역사 내 수유실을 비롯한 고객 편의시설물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열차 지연 및 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는 등 신뢰받는 대중교통 운영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긍정적인 평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농업기술원 화분매개곤충 산업 활성화 나서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는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장성군 향농농협과 지난 13일 화분매개곤충 현장 적용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분매개곤충(꿀벌·뒤영벌)의 현장 적용기술 확립과 기술 표준화, 화분매개곤충 생산 및 농가보급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장성지역 주요 과수인 단감에 대한 화분매개곤충 봉군 설치 요령과 투입 시기 등 현장 적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화분매개곤충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산구 가족센터, 운영방향 논의 1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광주국제협력단이 운영하는 광산구 가족센터는 최근 센터 교육실에서 '2025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결산안 보고와 올해 1차 예산 변경안 검토를 비롯해 가족센터 운영방향과 사업계획 보고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운영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 분기마다 회의를 통해 사업을 공유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장은미 광산구 가족센터장은 "운영위원들이 다양한 지원과 관심 속에 센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지역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지역 미래 100년 책임질 청년리더 집중 육성”

전남도, 6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 ‘청년과 호남, 상생공동체’ 주제 운영

전남도는 15일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지방시대에 적합한 전남 미래 100년의 청년 리더를 육성하는 제6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광현 순천시장, 제6기 교육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호남 청년 아카데미 비전 영상 상영, 레크리에이션, 도정 성과와 전남의 미래 비전 소개, 도정 현안에 대한 도지사와 청년과의 대화, 조별 네트워킹 및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실패와 파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가정신으로 용기있고 끈기있게 도전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길이 생길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어 “호남은 전통과 역사문화 유산이 풍부하다. 특히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로 노벨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애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전남은 이같은 잠재력 위에 AI 슈퍼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환경,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다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이루기 위해 청년들이 함께 방향을 잘 잡아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전남도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6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행사에서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6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청년과 호남, 상생공동체’를 주제로 운영된다.

청년 정책 관련 분야 토의를 통해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개강식에 이어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 △2회차 송길영 교수의 ‘변화의 시대, 청년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3회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방문 △4회차 박현도 교수의 ‘중동에서는 지금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5회차 노홍철의 ‘틀을 깨라! 평범함을 거부하는 창의적 사고법’ 및 수료식 등으로 진행된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민선 8기 도지사 역점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1기부터 5기까지 교육생 총 47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전원은 ‘전남도 청년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돼 전남도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 전남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친다.

이성희 중기일자리진흥원장은 “전남 청년이 이번 교육을 통해 호남의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흥군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고흥군,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우수 지자체 선정 캠페인 기간 5억6000만원 모금...목표 대비 195% 달성

고흥군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인증패를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고흥군은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펼쳐 2024년 연중 9억1000만원, 희망 2025 나눔캠페인 기간에 5억600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대비 195%를 달성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패는 연중 및 희망나눔캠페인 모금 활동에 적극 참여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이날 강촌차 주민복지과장 등 3명은 일선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을 받았다.

모금된 성금은 지역의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해 사용되며, 고흥군은 지난해 긴급 지원, 복권 기금, 기획 사업, 차량 3대 등 9억9000만원을 배분받았다.

공영민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다”며 “소외된 군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피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초당대 의약관리학과 이수빈 학생

KCI 등재학술지 게재...고혈압 치료제 연구 성과

초당대학교는 의약관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빈 학생(사진)의 연구논문 ‘칸테사르탄 실례세틸 고체분산체 개발 및 평가’가 대한약학회(KCI 등재학술지), 약학회지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수빈 학생은 해남공업고를 졸업 후 초당대학교 의약관리학과에 입학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최진석 교수 지도 하에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연구의 제1저자로 칸테사르탄 실례세틸 고체분산체 개발과 평가, 자료조사를 직접 수행했다.

이수빈 학생은 “6개월간 고혈압 치료제 연구개발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자료조사, 제제연구, 평가, 논문 작성 등을 하



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결과물로 얻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최진석 의약관리학과 교수는 “학생의 열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지방대학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당대학교는 모기업으로 백제약품(의약품)과 초당약품공업(제약회사)이 있다. 의약관리학과는 취업 진로를 제약회사(R&D, 품질관리, 영업 및 마케팅) 및 병원 행정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상위 20위권 제약회사를 취업 목표로 하고 있다. 무안=이현규 기자 leek2123@

담양군-화순군 보건소, 지역 간 상생 발전·연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지속적인 교류 다짐

담양군과 화순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전달하며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연대에 나섰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담양군 보건소에서 담양군과 화순군 보건소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식을 진행했다.

두 지자체 간 상호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며 담양군보건소와 화순군보건소에서 각 38명이 상호 기부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에 앞장섰다.

양 지자체는 지속적인 고향사랑기부 외에도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특산물·관광지 홍보, 주민 복지 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진 담양보건소장은 “화순군과 고향사랑기부



부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기부가 양 기관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통이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담양=조성용 기자 jwnews@gwangnam.co.kr



봉선남양휴튼1차 아파트는 한국환경공단, ㈜한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와 협력해 '순환점빵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봉선남양휴튼1차, 순환점빵 페스타 성료

봉선남양휴튼1차 아파트는 한국환경공단, ㈜한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와 협력해 '순환점빵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체결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민·관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 실천을 촉진하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주요 행사로는 투명 PET, 스티로폼, 금속 캔 등 다양한 재활용품을 탄소중립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과 폐식용유와 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을 친환경 비누나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주민들이 환경 보호와 개인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친환경 고체 샴푸 만들기'가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 혜택과 자연순환의 관심과 중요성을 높였다. 봉선남양휴튼1차 아파트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순환점빵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동천동 골목형상점가 상생간담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4일 동천동 음식점에서 열린 '골목형상점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청